

韓國 初期國家形成期の 政治支配勢力

李 鍾 旭

- I. 머리말
- II. 기존 연구와 그 문제점
- III. 촌락사회단계의 정치세력
- IV. 소국단계의 정치지배세력
- V. 소국연맹단계의 정치지배세력
- VI. 소국병합단계의 정치지배세력
- VII. 맺음말

I. 머리말

필자는 이미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 발전과정을 村落社會-小國-小國聯盟-小國併合段階로 나누어 보았다.¹⁾ 이는 한국초기국가 형성기에 대한 시대구분을 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새로운 시대구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한국 초기국가형성기의 정치형태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하여 당시 국가형성과 정치적 성장을 주도한 정치지배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의 초기국가 발전과정에 등장하였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이해없이 국가형성과 발전에

1) 李鍾旭, 「韓國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 『韓國史研究』 67, 1989, pp. 1-26.

대한 이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중 이와 관련된 것을 찾아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 소국형성 이전의 추장사회단계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하여 보고, 이어 소국·소국연맹·소국병합단계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문제를 차례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한국초기국가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한 걸음 진전하기를 기대한다.

II. 기존 연구와 그 문제점

먼저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세력에 대한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金哲堧은 씨족사회의 생활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며 가부장가족이 주체가 되어 部族國家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씨족사회는 대체로 신석기시대 이래의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²⁾ 한편 李基白은 청동기를 권위의 상징물로 소유하고 고인들에 묻힐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城邑國家의 정치적 지배자들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은 신석기시대의 부족장의 후예로서 그 전통을 이어 받은 자였을 것이라고도 하였다.³⁾ 여기서 한국의 초기 국가로서 성읍국가를 형성한 세력들이 과연 신석기시대 이래의 부족장의 후예라고 할 수 있을가 의문이 생긴다. 뒤에 소국의 형성세력에 대하여 정리할 때 다루기로 하겠지만 한국의 초기국가로서 대표적인 나라들인 夫餘, 高句麗, 百濟, 新羅, 加耶의 건국신화를 주목하면 그 건국세력들이 모두 移住民勢力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초기 국가의 형성세력들이 신석기시대 이래의 부족장의 후예일 수 없다는

2) 김철준, 「한국고대국가발달사」, 1975, pp. 46-49.

3)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 1990, p. 32.

근거가 된다. 더우기 소국 또는 성읍국가 형성 이전의 촌락세력들마저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촌락사회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소국의 형성세력은 신석기시대 이래의 지배세력들일 수 없다.

다음은 소국 형성세력과 그 이전 촌락사회의 지배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신라의 모체가 되었던 斯盧國의 지배세력이었던 박씨족, 석씨족, 김씨족과 촌락사회시대 각 촌의 지배세력이었던 6촌장세력의 후예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金哲竣은 신라에서는 박, 석, 김 3부족이 부족연맹을 형성하였는데 각 부족장들은 居西干이라고 하였고 부족연맹장은 尼師今이라고 하였으며 김씨의 왕위세습권이 확립된 후에는 麻立干이라고 칭하였으며 6부는 각기 部族國家라고 하였다.⁴⁾ 이와 같은 견해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첫째, 박, 석, 김씨족들은 부족집단이 아니었으며 더우기 부족연맹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赫居世를 시조로 하는 박씨족, 脫解를 시조로 하는 석씨족, 閼智를 시조로 하는 김씨족은 대체로 이주민집단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사로지역에 이주한 시기는 사로국의 국가형성전후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신라 초기에 정치적인 세력동맹을 하여 정치적인 지배세력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3씨족은 세력동맹을 통하여 과거 촌락사회시대 각 촌의 지배세력이었던 6촌장들의 후손들 위에 한단계 높은 정치세력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 3씨족세력은 6촌장계의 후손들보다 한단계 높은 신분층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박씨족, 석씨족, 김씨족세력들이 각기 居西干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신라시대에는 늘 한명의 왕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三國史記』新羅本紀의 각 왕의 즉위조와 『三國遺事』王曆편에 나오고 있는 왕들이 왕위를 계승하여 나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왕위계승에는 일정한 계승원리와 3씨족 사이의 정치적인 세력관계가 작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4) 金哲竣, 앞의 책, 1975, p. 76.

그리고 신라의 정치적 성장과정에 왕의 지위에도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 왕호도 변경되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居西干이라는 칭호는 赫居世 한 사람을 지칭한 호칭이었고 尼師今은 3대 儒理王에서 16대 訖解王까지 사용한 칭호였다. 그리고 麻立干은 17대 奈勿王 또는 19대 訥祗王부터 사용한 칭호였다. 여기서 金哲堧이 말하는 것과 같이 3부족(씨족)의 부족장들이 居西干이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견해와 부족연맹장이 尼師今이었다는 견해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부가 각기 부족국가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견해가 분명하다. 赫居世에 의하여 斯盧國이 형성된 후에는 과거 촌락사회시대 사로6촌의 촌장들의 후예들은 6촌의 지배세력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사로국의 왕 밑의 제2급의 지배세력집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로국형성 이후에는 6촌이 부족국가일 수 없다. 오히려 과거 6촌은 사로국의 지방행정 구역으로 되어 후일 6부로 편제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로국의 지배세력에 대한 李基白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한국사상 존재한 城邑國家 중 斯盧國은 及梁 등 6개 씨족의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赫居世는 금랑출신이었다고 보며 처음은 금랑에서 사로국의 지배자가 선출되었다고 하였다. 赫居世의 왕비였다고 하는 閼英은 사랑출신이었기에 사랑은 금랑 다음 가는 유력한 존재였다고도 하였다. 그 후 동해안 지역으로부터 진출한 脫解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당시에는 이미 주위의 여러 성읍국가들과 연맹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도 사로국의 지배세력인 赫居世集團과 6촌과의 관계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赫居世는 6촌장의 후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정은 脫解나 閼智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

라서 그들의 후손인 박씨족, 석씨족, 김씨족은 모두 과거 촌락사회시대의 6촌장의 후예들일 수 없다. 赫居世, 脫解, 閼智 등은 이주민으로 자기 나정, 월성, 계림에 정착하였던 것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⁵⁾ 그런데 그와 같은 세 씨족은 신라의 왕을 배출하는 최고 지배세력이 되었고 상호 결혼을 통한 세력동맹도 맺었다. 그 결과 세씨족들이 왕, 왕비 등을 배출하는 왕실세력으로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왕실세력이 이루었던 세씨족의 성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나정, 금성, 월성, 계림을 포함하는 사로국의 政治中心區域에 살게 되었으며 점차 그들의 집단 성원이 늘어나게 되며 정치중심구역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한 정치중심구역은 후일 신라왕경의 王都로 되었다. 한편 사로6촌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로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되었고 후일 왕경6부로 편제되었다. 종래 촌락사회시대의 6촌장의 후예들은 6부의 지배세력으로 되었고 후일 각 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다른 姓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에 주어진 성씨는 과거 촌락사회의 후예들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와는 달리 왕실세력들은 그들의 성인 朴, 昔, 金의 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로국의 정치중심구역은 과거 사로6촌 중 세개 촌에 일부 걸쳐 있었다. 나정과 금성은 돌산고허촌지역인 신라 왕경의 사탁부에 위치하여 있었고 월성과 계림은 알천양산촌이 개편된 왕경6부의 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로국의 정치중심구역은 그외에도 본피부의 일부 지역도 점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다시 분명히 하고 넘어갈 문제는 박, 석, 김 세씨족과 과거 6촌장계통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6성집단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 석, 김씨족들은 6부보다는 정치중심구역 후일의 왕도에서 세력을 일으킨 집단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그들을 6촌장의 후예로 보거나 6촌출신이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는 따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상 등장하였던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마찬가지

5)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 231.

였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한국 초기국가의 성장과정에 편제되었다고 하는 신분제에 대한 기존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는 한국초기국가의 신분제편성과 지배세력의 실상에 대한 이해의 열쇠가 된다. 한국의 초기 국가 성장과정에 촌을 통합하여 소국이 되었고 소국들의 연맹에 의하여 소국연맹이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소국들을 통합하여 소국병합을 이룬 정치체가 성장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여 한국의 초기국가 성장과정은 정치적 통합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 새로이 병합된 지역의 지배세력과 통합을 주도한 국가의 지배세력들은 어떻게 신분편제를 하였는지 궁금하다. 여기서 신라의 지배체제의 편성에 대한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金哲峻은 신라 고대국가의 지배체제 편성은 곧 족장세력의 편제였다고 하며, 신라의 관계조직을 보면 9간과 같은 기층에 있는 촌장 또는 씨족장세력에게는 4두품신분을 주었고, 그러한 족장급을 통합한 보다 큰 세력에게는 5두품을 주었고, 그 위에 성립된 부족국가의 세력 예컨대, 『三國志』魏書에서 말하는 君長이나 『三國史記』에 나오는 居西干급에게는 6두품을 주었고, 2개 이상의 부족을 통합하여 부족연맹을 이루었던 세력이거나 그 것에서 轉化한 중앙귀족에게는 진골의 신분을 준 것으로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전덕재는 '신라국가는 대체로 지방 소국이나 읍락의 수장층, 지배계층을 중앙의 관등에 흡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 하였다.⁷⁾ 한편 朱甫暉은 '적어도 관등상으로 干群을 칭하는 것으로 미루어 진골과 6두품은 복속·피복속의 차이나 세력기반의 규모에 의한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족장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었다'고 하였다.⁸⁾ 李基白은 연맹왕국시대에 중앙

6) 金哲峻,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p. 277.

7) 전덕재, 「新羅 6部體制의 變動過程 研究」, 『韓國史研究』 77, 1992, p. 13.

8) 朱甫暉,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1993, p. 40.

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가 채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연맹체적인 유제도 지녔다고 하였다. 부여나 고구려의 대가들은 가신을 거느렸으며 정치의 실권은 오히려 왕족이나 왕비족의 가계장이라고 생각되는 그들 대가들에게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 부여와 고구려의 대가는 삼한의 신지나 읍차와 같은 성읍국가의 지배자들과는 달리 중앙의 귀족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였다.⁹⁾

그러면 신라의 소국병합과정에 병합 촌락과 소국의 지배세력을 어떻게 편제하였을까. 그리고 과연 지방세력들이 중앙귀족화하는 현상이 있었을까. 먼저 피병합세력의 신분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신라의 골품제를 보면 왕경인의 신분과 지방민의 신분이 다른 체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가 이웃한 소국을 병합하고 또 가야와 같은 소국연맹을 병합한 후 피병합국의 지배세력들은 지방신분제에 편입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피병합국의 지배세력에 대한 중앙귀족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본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金仇亥와 그의 세아들이 신라의 왕경으로이주되어 신라의 진골신분으로 편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피병합국의 지방세력들에 대한 중앙귀족화현상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피병합국세력들의 중앙귀족화 현상은 거의 불능하였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金仇亥 일족의 왕경 이주와 진골편제라는 사실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조선의 조선상, 니계상 등이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사실과 부여나 고구려의 대가들이 가신을 거느리고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하여진다.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룰 문제이기 에 간단히 결론만 언급하자면 부여나 고구려의 가신을 거느린 大加들은 일종의 제후적인 존재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활동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지방의 제후적인 존재

9) 李基白, 『韓國史新論』, 1990, pp. 52-54.

였으며 당시의 통치체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은 연맹왕국단계에서는 왕실의 교대현상이 있었으나 정복활동이 진행되며 왕권이 강화되었고 왕위도 부자상속에 의하여 세습되었다고 하는 李基白의 견해를 주목하기로 한다.¹⁰⁾ 신라, 고구려, 부여 등의 경우에 왕실의 교대현상을 찾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왕실교대 현상이 연맹왕국단계의 특성일 수는 없다. 왕실교대는 신라의 예를 통하여 보면 신라의 모체가 되었던 사로국의 지배세력들이 동맹을 맺었던 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구려의 왕실교체는 소국연맹의 맹주국의 변동이거나 신라와 같이 고구려소국의 지배세력의 동맹체의 지배권 변동 정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I. 촌락사회단계의 정치세력

소국형성 이전 촌락사회시대의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오고 있는 사로국과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나오고 있는 내용과 지식묘와 같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주목하면 촌락사회의 정치세력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촌장사회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三國遺事』新羅始祖 赫居世王조에 나오고 있는 6촌, 6부, 촌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三國遺事』赫居世王 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赫居世가 등장하여 사로국을 형성할 무렵 사로지역에는 6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로국은 그와 같은 6촌을 통합하여 형

10) 이기백, 앞의 책, 1990, p.53.

성되었던 소국이다. 둘째, 사로6촌에는 각기 촌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의 기록에는 6部祖와 그들의 자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의 기록에는 돌산고허촌장인 소벌공이 나오고 있고 『三國遺事』의 기록에는 6촌장의 이름과 그들이 내려온 곳 그리고 그 후 6부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사로국 형성 이전 사로6촌의 촌장이 어떠한 정치적 존재였는지 생각하기로 한다.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前漢 地節 元年(기원전 69년)에 6촌장과 그 자제들이 關川岸上에서 모여 덕이 있는 사람을 君主로 삼고 立邦設都하기 위한 회의를 연 장면이 나오고 있다. 그 기록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중 6촌장들이 자제를 거느리고 회의에

<표 1> 『三國遺事』에 나타난 六村과 六部

	斯盧六村			王京六部		高麗初 六部		
	六村名	六村長 六部祖	始祖 降臨地	六部名	姓	六部名	部の 位置	六部 의 關係
1	關川楊山村	謁平	瓢[]峯	及梁部	李	中興部	(中央)	母
2	突山高墟村	蘇伐都利	兄山	沙梁部	鄭(崔)	南山部	南村	
3	茂山大樹村	俱禮馬	伊山	牟(漸)梁部	孫	長福部	西村	父
4	[]山珍支村	智伯虎	花山	本彼部	崔(鄭)	通仙部	東南村	
5	金山加利村	祗[]	明活山	漢[]部	裴	加德部	東村	女
6	明活山高耶村	虎珍	金剛山	習比部	薛	臨川部	東北村	子

참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제는 촌장의 혈족집단을 의미한다. 이에 촌락사회시대에는 촌장과 그 일족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혁거세가 등장할 때 있었다고 하는 6촌장들은 6촌의 祖로 되어 있고 그들이 처음 6촌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6촌장들이 赫居世가 등장할 무렵 6촌에 내려온 것으로만 보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것은 혁거세 등장시 사로6촌에는 고조선제의 유민과 과거 지식묘를 축조하고 있던 시대의 사회정치적 세력집단이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중 청동기를 사용하고 지식묘를 축조한 주인공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경으로 추측되고 있기에 6촌장 역시 그러한 기간에 존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보면 6촌의 조에 대한 인식도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7세기 경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가 짐작이 간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촌의 시조와 그 촌장에 대한 계보파악은 청동기시대, 지식묘를 축조하던 시대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으리라는 사실이다. 이는 촌락사회 단계의 정치적 지배세력들이 신석기시대의 전통을 이었다는 견해와는 다른 것을 뜻한다.

여기서 『三國遺事』에 나오고 있는 기록 중 6촌장들이 하늘로부터 峰 또는 山에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는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6촌장의 천강설화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천강설화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6촌장들이 이주민이었던 사실의 반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타당하다면 사로6촌의 시조와 그 뒤를 이었던 촌장들에 대한 계보를 사로6촌의 주민들이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 계보파악은 역사적인 변동을 겪었다고 해야하지기에 『三國遺事』에도 6촌의 조가 마치 혁거세 등장 때 있었던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촌락사회단계의 각 촌락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촌의 시조와 그 후의 촌장들에 대한 계보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촌장들에 대한 계보파악은 사로6촌에만 국한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고조선지역의 소국 형성 이전의 사회에는 꿈을 상징으로 하는 집단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추장사회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여 보았다.¹¹⁾ 이에 요동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촌락들이 추장사회단계에 이르러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들도 촌의 시조와 촌장들에 대한 계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현상은 夫餘, 高句麗, 沃沮, 濊 및 가락9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단지 촌을 통합하여 소국을 형성한 후 소국형성세력의 정치적인 중요성이 커졌고 더우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사로국 이외의 촌락사회의 정치적 지배세력에 대한 자료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촌락사회시대 촌락의 시조와 촌장들의 계보에 대한 인식은 당시 보편적으로 있었다고 믿어진다. 그러한 촌의 시조와 그 뒤를 이었던 촌장들에 대한 계보파악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씨족집단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촌락의 시조는 촌락민의 혈연적인 관계를 정하여 주는 기준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촌장에 대한 계보파악은 촌장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자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서 촌락사회단계의 씨족에 대한 문제를 잠시 정리하기로 한다. 사로6촌을 예로 들기로 한다.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혁거세가 등장하던 시기의 6촌장들이 신라왕경 6부의 주민들에게 준 鄭, 李, 裴, 薛, 崔, 孫씨의 시조로 각기 되었다고 한다.¹²⁾ 그런데 혁거세의 등장시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6촌장들이 6부에 주어진 성씨의 시조였

11) 李鍾旭, 『古朝鮮史研究』, 1993, pp. 62-64.

12) 『三國遺事』 1, 紀異 2, 新羅始祖 赫居世王조.

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이전 촌락을 이루었던 시조들이 있었고, 그들을 조상으로 하는 촌락민들이 하나의 혈연집단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촌락민들은 그들의 시조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촌락민들 사이에는 혈연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혈연적인 관계는 촌락민들의 지위를 결정하여 주는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촌장들은 씨족집단의 장이었다고 헤아려진다. 실제로 공동시조를 가지고 있었고 촌장의 계보를 파악하고 있던 촌의 주민들은 각기 촌을 단위로 하는 씨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믿어진다. 물론 촌락사회시대에도 주민들의 이동은 계속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단 추장사회에 들어선 사회에 새로이 이주한 세력들은 결혼이나 의제가 족적인 관계에 의하여 점차 촌락민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도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한국 촌락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씨족집단이 유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후 고조선의 정치적인 변동이 생겼을 때 고조선계 주민들이 주변의 추장사회로 이주하며 점차 소국을 형성할 기운이 익어가게 되었다. 당시 촌락사회의 정치사회적인 성격에 변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IV. 소국단계의 정치지배세력

앞에서 촌락사회단계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 몇개의 촌락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던 소국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한국 초기국가의 건국신화에 나오고 있는 정치지배세력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1) 魏略에 말하기를 舊志에 또 말이 있다. 옛날 북방에 高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비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婢가 말하기를 달걀같은 기운이 나에게 내려온 까닭에 임신을 하였다. 후에 아들을 낳았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자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고, 마굿간으로 옮겼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 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천제의 아들이라 생각하여 그 어머니에게 기르도록 하고 동명이라고 하였다. 늘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동명은 활을 잘 쏘았다. 왕은 그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동명이 달아나서 남쪽 施掩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떼서 다리를 만들었다. 동명이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지고 추격병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동명은 도읍을 정하여 부여의 땅에서 왕이 되었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전 소수 魏略)

(2) ……朱蒙은 이에 烏伊, 摩離, 陝父 등 세 사람과 더불어 벗이 되어 淹切水에 이르렀는데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병이 쫓아 올라 두려워 하여 강물에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으로 금일 도망하는데 뒤쫓는 자가 닥치면 어찌하겠는가?' 하니 이 때 물고기와 자라가 떼올라 다리를 이루었다. 주몽이 무사히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지고 뒤를 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하였다. 주몽이 모둔곡에 이르러 세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삼베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중의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마름옷을 입었다. … 주몽은 재사에게 극씨라는 성을 주고, 무골에게는 중실씨, 목거에게 소실씨라는 성을 주었다. 이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마침 세 현인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드디어 그 재능을 헤아려 각각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그 토양이 기름지고 산하가 험고함을 보고 마침내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 가에 단지 띠를 이어 살았다.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고 인하여 高로서 성을 삼았다. 이 때 주몽의 나이는 22살인데 한 효원제 건소 2년, 신라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始祖東明聖王 즉위조)

(3)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의 아버지가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더

니 부여왕은 아들은 없고 세 딸만 있었다.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두째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 얼마 안되어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이고 둘째 아들은 온조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용납되지 못할가 염려하여 드디어 오간, 마려 등 十臣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나니 백성들 중 따르는 자가 많았다. … 온조는 하남위례성에 도읍하고 심신을 보익으로 삼아 국호를 심제라 하니 이 때는 전한 성제 홍가 3년이었다.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百濟始祖 溫祚王)

(4) 시조의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혁거세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4월에 왕위에 오르니 왕호는 거서간이다. 그 때 나이가 열세살이었다. 나라 이름을 徐那伐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이 산곡 사이에 나누어 살며 6촌을 이루었는데 …고허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 나정 옆의 숲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우는 것을 바라보고 곧 가서 보니 문득 말은 볼 수 없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그 것을) 깨니 갓난 아이가 나왔다. 곧 데려다 길렀는데 나이 십여세가 되자 기골이 준수하고 숙성하였다. 6부인들은 그 출생이 신이하여 높이 받들고 존경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임금(君)으로 삼았다.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赫居世 居西干)

(5) …그 열두 시간이 지난 후 날이 새면 무렵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열었더니 알 여섯이 동자로 되었는데 용모가 심히 위엄이 있었다. 이내 절상에 앉으니 무리들이 배하하고 공경을 그치지 않았다. 나날이 자라 10여 주야가 지났다. 키가 9척인데 股의 天乙과 같고 얼굴은 용과 같아 漢 高祖와 같고 눈썹이 八字로 채색이 나는 것은 唐 高祖와 같고, 눈동자가 두겹으로 된 것은 虞의 舜과 같다. 그 중 하나가 그 달 보름날에 왕위에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수로라고 했는데 혹은 首陵이라고도 했다. 나라를 大駕洛이라 칭하였고 또는 伽耶國이라고도 하니 곧 여섯 가야 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갈 곳으로 가서 다섯 가야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이요, 서남쪽은 창해요, 서북쪽은 지리산이요,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대가락의 왕은 임시로 대궐을 세우게 하고 여기에 거처하였는데 질박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했으니 집에 이은 이영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쌓은 층계는 겨우 3척이었다. (『三國遺事』 2, 紀異 2, 駕洛國記)

위의 기록들은 한국초기국가의 건국신화들 중 필요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정치지배세력과 관련시켜 초기국가의 건국세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부여의 건국자라고 하는 동명은 고리국으로부터 이주한 세력이었고, 고구려를 세웠다고 하는 주몽은 부여로부터 이주한 세력이었으며, 백제를 세웠다고 하는 온조는 고구려로부터 이주한 세력이었다. 신라를 세웠다고 하는 혁거세와 가락국을 세웠다고 하는 수로는 어디서부터 이주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들 역시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서 한국의 초기국가로서 소국을 형성하였던 정치세력들은 대부분이 선진 정치체로부터의 이주민들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국 건국세력이라고 본 이주민들의 정치적인 성격은 어떠한 것일까. 소국들의 건국세력이었던 이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선진하였던 국가로부터 정치적인 갈등 또는 경쟁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국을 형성하였던 이주민들은 선주하고 있던 정치세력들보다 뛰어난 정치적, 군사적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유능한 정치적, 군사적 실력자가 있을 때 촌락사회단계에 있던 지역에서 초기국가로서 소국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헤아려진다. 그러한 예로는 부여의 동명, 고구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 신라의 혁거세, 가야의 수로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소국형성세력들을 보면 하나의 소국을 세우는 데 계통이 다른 이주민들이 세력을 결탁하기 위한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었다. 신라의 모체가 되었던 사로국의 정치지배세력으로는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박씨족, 탈해를 시조로 하는 석씨족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족이 동맹을 맺었던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는 왕을 배출하던 계루부와 전왕족이었던 소노부, 왕비를 배출하였다고 하는 절노부 등 세력들의 세력동맹이 있었다고 여겨진다.¹³⁾ 그리고 가야에서는 왕을 배출하던

13) 『三國志』 僞書 東夷傳 高句麗傳.

수로를 시조로 하는 세력과 수로의 비를 배출하였던 허왕후 세력들이 결탁하여 정치적인 지배세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초기국가로서 소국을 형성하였던 이주민계통의 정치지배세력들은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하여 촌락사회단계의 지배세력들은 소국형성 후에도 촌락의 지배세력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그러한 예는 사로국 형성 이후 왕위는 박씨족, 석씨족, 김씨족에서 차지하였고 과거 6촌지역에서는 촌락사회단계의 촌장들의 후손이라고 생각되는 세력들이 세력을 장악한 것으로 알 수 있다.¹⁴⁾ 소국형성 후에는 이주민들 정치지배세력들은 촌락을 통합한 보다 큰 정치영역인 소국 전체의 지배세력이 되었고 과거 촌락사회의 후예들은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촌의 세력가로 남았던 것이 된다. 단지 촌락의 세력집단은 소국의 지방통치영역인 촌 또는 부의 지방세력으로 되어 제2급의 정치세력으로 편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사로국을 예로 들어 보면 과거 사로6촌장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선주세력과 사로국을 세운 박, 석, 김씨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주민계통의 지배세력 사이에는 혈연적인 단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 촌락사회단계의 사로6촌에는 촌마다 각기 씨족집단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당시 촌을 다스리던 중요한 원리는 혈연적인 원리였다. 그러나 사로국이 형성된 후에는 소국 전체를 다스리는 원리로 혈연적인 원리는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 것은 이주민계 지배세력과 촌락의 지배세력 사이에 혈연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친족체계는 국가통치의 적합한 방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사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결국 한국 초기국가로서의 소국의 통치는 한층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4) 李鍾旭, 앞의 책, 1982, pp. 234-235.

이제 이주민들에 의하여 소국이 형성되며 신분이 편성된 사실을 생각하기로 한다. 앞에서 촌락사회단계의 사회에는 엄격한 신분제는 없었고 촌장과 촌락민 사이에 계급은 존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소국이 형성되며 이주민계통의 지배세력들이 왕위를 장악하고 촌들을 통합하여 다스리게 되며 그들 이주민계통의 주민들과 과거 촌락사회 이래의 선주세력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인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이주민계통의 정치지배세력들이 신분제의 상층신분을 형성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한국의 소국형성과정은 종족적인 신분평성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계통의 상층신분층과 촌락민계통의 그 밑의 신분층은 종족을 달리하였던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촌락민계통의 주민들은 새로이 자리잡은 상층신분계층민의 지배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그러한 신분층이 갈리게 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소국을 형성하며 지배세력으로 왕위를 장악하고 최고의 신분층으로 자리잡았던 이주민계통의 주민들은 점차 그 집단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 원래 소국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주민들 사이에 동맹관계를 맺은 바 있다. 그와 같은 동맹관계는 결혼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한 예는 사로국의 지배세력이 되었던 박씨족, 석씨족, 김씨족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¹⁵⁾ 그와 같은 이주민계통의 지배세력은 왕과 왕비를 배출하며 왕실세력으로 성장하여 나갔다.

그런데 그러한 왕실세력들은 그들의 지배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예로 건국신화를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 나오는 단군은 고조선 소국의 지배세력의 시조탄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초기국가 형성세력들은 각 씨족별로 그들의 존재를 상징하는 장치가 있었다. 사로국의 건국세력

15)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1980, pp. 194-195.

인 박혁거세집단은 말, 석탈해집단은 까치, 김알지집단은 닭을 그들의 상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간다.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는 각 씨족의 토궐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왕실세력들은 각기 그들의 시조에 대한 제사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조묘의 존재는 그러한 사정을 말하여 준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종교적인 행사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시조의 후손들을 한데 묶는 기능을 한 것이 분명하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행할 때에 그 참석자들은 시조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혈족집단의 계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자연 혈족안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소국형성 이후 시간이 지나며 왕실세력들은 그들의 혈족집단의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과정에 왕을 배출하는 중심계보에서 떨어진 집단은 가계가 분지되어 나갔다고 믿어진다. 당시 왕으로부터 혈연적으로 떨어진 왕실세력들은 점차 정치적, 신분적으로 격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예는 후일 신라의 족강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단 족강을 당하면 그들의 신분적인 지위도 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국가가 형성된 이후 혈연적인 원리는 왕국의 최상부에서 왕위계승과 같은 중요한 일에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촌락사회단계에서는 혈연적인 원리가 정치적인 원리로 작용한 데 반하여 국가형성 이후에는 혈연적인 원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될 수 없었다.

다음은 소국단계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지배세력들의 거주지에 대한 문제를 보기로 한다. 고조선의 왕은 왕검성에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¹⁶⁾ 고구려의 주몽은 고구려를 처음 세울 때 거틀이 없어 비류수가에 초막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사료A2), 4년 7월에는 성곽과 궁실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¹⁷⁾ 백제의 온조는 하남위례성에 도

16) 『三國遺事』 1, 紀異2, 古朝鮮조.

음을 정하고 십신의 보좌를 받아 십제를 세운 것으로 나오고 있다(사료A3). 신라는 혁거세 21년에 서울에 성을 쌓아 금성이라 한 것을 볼 수 있다.¹⁸⁾ 혁거세왕 26년 봄 정월에는 금성에 궁실을 지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¹⁹⁾ 가락국의 수로왕 2년에 주위 1천 5백보의 羅城에 宮禁殿宇 및 여러 관청 건물과 무기고, 곡식창고의 자리를 잡고 먼저 성을 쌓고 이어 궁궐과 집들을 지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²⁰⁾

위와 같이 소국을 건국한 왕들이 성을 축조하고 또 그 안에 궁실을 축조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성과 그 안의 건물들이 갖추어졌던 사정은 여러 소국들이 같았다고 여겨진다. 그 중 성의 존재는 城邑國家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한국의 초기국가로서 형성되었던 소국들의 성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까. 여기서 李基白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청동기를 권위의 상징물로 소유하고 고인들에 묻힐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신석기시대 부족장의 후예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지배자들은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성이나 목책을 만들고 스스로를 방위하면서 그 바깥 평야에서 농경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배해 나가는 정도였다고 하였다.²¹⁾

위와 같은 성읍국가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신석기시대의 부족장의 후예일 것으로 본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소국의 형성세력들은 이주민들로 신석기시대는 물론이고 소국형성 이전에 존재하였던 촌락사회의 지배세력들과도 혈연 및 종족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초기국가의 성은 정치적 지배세력들의 거

17)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始祖東明聖王 4년.

18)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 21년조.

19)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 26년조.

20) 『三國遺事』 2, 紀異 2, 駕洛國記.

21) 李基白, 『韓國史新論』 (新修版), 1990, p. 32.

주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 은나라와 주나라의 경우 성읍에는 지배세력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살았다.²²⁾ 이에 중국에서는 성읍 국가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지 않다. 그에 비하여 한국사에 나타나는 성들은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가 될 수 없었기에 같은 성읍국가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그 것과는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국 초기국가로서 소국들에 축조되었던 城의 성격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소국의 성들은 李基白이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배세력들의 거처로 그들을 방위하던 시설이었던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왕과 그 일족이 거처하던 궁실이 있었고 관청의 청사, 무기고, 곡식창고 등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성의 규모는 큰 것일 수 없다. 사로국의 경우 금성에서는 박씨족들이 자리잡았고, 월성에는 석씨족들이 자리잡았으며 계림에는 김씨족이 자리잡았다고 생각된다.²³⁾ 그와 같은 금성, 월성, 계림지역은 후일 하나의 도시에 위치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에 소국시대가 금성, 월성, 계림을 포함하는 지역은 사로국 전체의 정치중심구역으로 되었다고 여겨진다.²⁴⁾

이제 한국초기국가 형성과정에 존재하였다고 하는 성읍국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치적 지배세력의 거주지였던 성읍은 중국의 성읍과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읍국가의 지배세력의 기원에 대한 李基白의 견해와 필자의 견해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사용하는 성읍국가의 개념과 시기는 종래의 견해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필자가 말하는 성읍국가는 지배세력의 보호시설이었다는 면에서는 李基白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읍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청동기를 사용하

22) 李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 1986, pp. 46-47.

23) 李鍾旭, 앞의 책, 1982, p. 231.

24) 李鍾旭, 앞의 책, 1982, p. 233.

고 지석묘를 축조하던 촌락사회를 넘어선 정치단계인 소국단계부터일 수 밖에 없다.

V. 소국연맹단계의 정치지배세력

다음은 소국연맹단계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소국연맹단계의 각 소국들은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각 소국을 단위로 한 지배세력들이 편제되었던 사실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소국연맹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료를 제시할 수 있다.

B 23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강역을 두고 분쟁을 하였는데 왕에게 와서 판결을 청하였다. 왕이 처리하기 어려워 금관국 수로왕이 나이 들고 지식이 많아 불러서 물었다. 수로가 의견을 내 분쟁이 된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 때에 왕이 6부에 명하여 모여 수로왕을 접대하게 하였다. 5부는 모두 이찬으로 주인을 삼았는데 오직 한기부만은 위가 낮은 자를 주인으로 삼았다. 수로가 노하여 그의 종 탐하리에게 명하여 한기부주 보제를 죽이고 돌아오게 하였는데 종이 음즙벌주 타추간의 집으로 도망하여 의지하니 왕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종을 찾게 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대로 음즙벌국을 치니 그 주와 무리들이 스스로 항복하였다.(『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위의 기록은 대체로 소국연맹단계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의 영토분쟁이 생겼을 때 사로국의 왕이 파사왕에게 해결을 청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사로국이 진한이라는 소국연맹의 맹주국이 되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맹주국의 역할 중에 연맹소국들의 영토분쟁을 조정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탈해가 끼어

든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당시 가야와 사로국을 맹주국으로 하는 소국연맹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파사왕이 군대로 음즙벌국의 항복을 받은 사실은 역시 진한 연맹에서 사로국이 차지하는 정치적 역할이 컸던 것을 뜻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국간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사로국이 음즙벌국을 항복시키기 전까지는 각 소국에 왕이 있었던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소국병합이 전개되기 전까지 각 소국의 정치지배세력들이 독자적인 기반 위에 존재하였던 것을 뜻한다. 소국연맹의 각 소국에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왕실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각 소국의 왕실세력들은 건국신화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믿어진다.

그러면 소국연맹의 맹주국의 정치지배세력들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까. 소국연맹의 맹주국은 소국간의 분쟁을 조정하였고 또 원거리교역을 주관하였다고 생각하여 보았다.²⁵⁾ 그 과정에 맹주국의 정치지배세력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역할은 다른 소국의 지배세력들의 그 것보다 확대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각 소국들은 독자적인 신분체제를 유지하였음에 틀림없다. 또한 각 소국의 국민들은 해당 소국의 국민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본 소국연맹단계의 정치지배세력의 편제는 중국 은왕조의 국가조직과 비교된다. 은왕조에는 방, 읍, 국의 성읍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성읍 간에는 상호간의 정치적, 군사적 헤게모니의 장악, 토지의 확보, 치수관개사업을 중심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상호 충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가 일치한 성읍들이 유력 읍을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은 왕조도 그러한 방국연맹²⁶⁾ 또는 성읍연맹국가를 기반으로 출현하

25) 李鍾旭, 앞의 논문, 1989, p. 20.

26) 李春植, 「中國古代國家의 二重構造와 世界觀」, 『亞細亞研究』 35-1, 1992, p. 99.

였다고 한다.²⁷⁾ 한국의 소국연맹도 그러한 은왕조의 성읍연맹과 유사한 정치발전단계였다고 여겨진다.

VI. 소국병합단계의 정치지배세력

소국병합단계에 이르면 소국이나 소국연맹단계와는 달리 여러 소국을 통합하여 영토와 인구가 크게 확대된 왕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한국사상 소국병합단계까지 정치적 성장을 하였던 나라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각 나라는 소국병합단계에 이르렀던 시기에 차이가 있었고 주변 여러 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달랐다. 따라서 소국병합단계에 이르렀던 나라의 정치지배세력들의 성격이 같은 것만도 아니었다. 이에 소국병합단계 왕국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C (1) 좌장군이 이미 양군을 합하여 조선을 급히 치니 조선상로인과 상 한음, 니계상 참, 장군 왕협이 서로 모의하여 말하였다.
(『史記』朝鮮列傳)

(2) 나라에는 군왕이 있었다. 6축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 부락에는 호민이 있고 하호라 불리던 백성은 모두 노복과 같았다. 諸加들은 별도로 4出道를 주관하였는데 큰 자는 수천가, 작은 자는 수백가를 다스렸다.
(『三國志』東夷傳 夫餘)

(3)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다. 관으로는 상, 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대, 승, 사자, 조의 선인이 있었으며 존비에 각기 등급이 있었다.... 왕의 종족으로 대가들은 모두 고추가를 칭하였다. 연노부는 본래 국주였기에 지금 왕이 되지 못하지만 적통대인은 고추가의 칭호를 얻었고 또한 종묘를 세우고 영성사직에 제사를

27) 李春植, 앞의 책, 1986, p. 35.

지낼 수 있다. 절노부는 대대로 왕과 혼인을 하여 고추의 칭호를 더하였다. 諸大加들은 또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들 두는데 그 명단을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치 (중국의) 경, 대부의 가신과 같은데 회동하여 앉고 일어설 때에는 왕가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열에 있을 수 없다. (『三國志』東夷傳 高句麗)

(4) 7년 봄 2월 골벌국와 아음부가 무리를 이끌고 래향하여 제택과 전장을 주어 편안히 지내게 하고 그 따을 군으로 만들었다. (『三國史記』2, 新羅本紀 2, 助賁尼師今)

위의 기록들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가 소국들에 대한 병합 후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편제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국병합을 통하여 확대된 영역이 단위가 되어 그 안에 살던 주민들을 하나의 통치질서 속에 묶어 두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소국병합을 주도하였던 소국의 지배세력들과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들의 정치적, 신분적 지위가 차이났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 신라의 골품제를 들 수 있다. 진한소국연맹의 맹주국이었던 사로국이 연맹의 소국들을 모두 병합한 후 사로국은 새로이 확대된 왕국의 왕경으로 자리잡았다. 그 과정에 왕경인들의 신분적인 지위는 피병합소국의 세력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후일 골품제를 편제할 때 왕경인은 골품신분을 가졌고 피정복소국이 지방행정구획으로 편제되었던 지방의 백성들은 지방신분제에 편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왕경인과 지방인의 신분적인 차별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야려진다. 단지 피병합소국들에 대한 통치방법의 차이에 따라 그 차별의 정도와 지방인의 중앙정제 진출이 차이가 났다고 해야려진다.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피병합소국에 대한 신분편제에 대한 문제부터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고구려의 지방세력에 대하여 주목하기로 한다. 사료C3에는 고구려의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는데

마치 중국의 경대부의 가신과 같았다고 하는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다. 대가들 중에는 고추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지방에 존재하던 정치적 세력이 정도로 생각된다. 그 것은 부여의 제가들이 4출도를 다스렸다는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지방세력이었던 대가들이 중국의 경대부의 가신과 같은 존재를 거느렸다는 것은 고구려의 대가들이 중국의 제후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고구려의 지방통치는 대체로 중국의 제후와 같은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은왕조를 멸한 주왕조는 王朝祚命의 근간으로 종법봉건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봉건제의 실시는 먼저 주왕실의 자제, 일족 및 동맹부족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분봉, 배치하고 은유민의 감시와 주변 夷狄들의 준동, 침입에 대처토록 하였다고 한다.²⁸⁾ 그러면 고구려는 어떠하였을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구려의 중앙정부에서도 왕족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지방통치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보다는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들을 제후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을 통하여 지방통치를 행한 것은 아니었다 짐작이 간다. 여기서 고구려와 중국의 지방통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제후들의 성격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중국과 같은 형태의 봉건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같은 형태의 피병합소국에 대한 지방통치는 부여와 고조선에서도 행하여졌다고 생각된다. 위만조선의 조선상, 니계상과 같은 존재들(사료C1)은 지방세력들이었음에 틀림없다.²⁹⁾ 그들은 고조선시대부터 지방에 세력을 뿌리내리고 있던 세력의 후예들로 연인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세력을 유지하고

28) 李春植, 앞의 논문, 1992, p. 101.

29) 李鍾旭, 앞의 책, 1993, p. 229.

있었다고 해야려진다. 그들은 위만조선시대에 상의 지위를 부여받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그들의 정치적인 성격은 제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부여의 대가들이 4출도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사료C2) 그들 역시 지방세력으로 제후적인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조선, 부여의 지방세력들은 중국의 제후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러면 사로국이 병합한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들은 어떻게 편제되었을까. 사료C4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골별국왕 아음부가 신라에 래항하자 그를 왕경으로 불러들여 살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땅을 군으로 편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구려와 다른 형태의 지방통치조직을 편성한 것을 뜻한다. 골별국왕 아음부는 왕경으로 사민되어 살게 되었으나 그가 고구려의 제후와 같이 중앙정계에서 활동을 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라의 피병합소국편제는 봉건제적인 모습을 지녔다기보다 군현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피병합소국에 대한 고구려적인 편제와 신라적인 편제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중국의 그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봉건제적인 성격을 지녔고 후자는 아직 지방관을 상주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군현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피병합소국의 통치와 관련시켜 과거의 소국왕의 세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거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하여 고구려, 부여, 고조선에서는 지방세력을 제후적인 존재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지방통치는 물론이고 중앙정계에 진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소국병합을 통하여 형성한 왕국 최고의 지배세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병합을 주도한 소국의 지배세력은 왕국 전체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중 최고의 정치지배자는 왕이었다. 왕국안에서는 왕의 계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부여는 사료가 거의

사라졌기에 왕의 계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고조선은 현재 구체적인 계보는 알 수 없으나 40여 세에 걸친 계보를 준왕대에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⁰⁾ 한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위계승에 대한 계보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계보파악은 왕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주었다. 그리고 정복을 주도한 소국의 건국신화는 왕국 전체의 건국신화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병합소국의 건국신화는 역사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소국병합단계의 지배세력으로는 왕족 이외에 왕비를 배출하던 세력, 전왕족집단 등도 들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왕족, 전왕족, 왕비족들이 종묘를 세우고 적통대인들은 고추가에 칭호를 가졌던 것은 그들 세력의 정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장치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사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왕국의 최상부에서 정치지배세력으로 존재하던 왕족, 왕비족, 전왕족들의 규모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늘어났다고 여겨진다. 그에 따라 일부 가계에 속한 세력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세력 집단을 재생산하여 나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가계의 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가진 가계의 사당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미추왕을 모신 것으로 생각되는 신라의 신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하튼 정치적인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상실한 세력들은 점차 족강이 되어 정치적 진출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신분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들을 어떻게 편제하였나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구려, 부여, 고조선에서는 피병합국의 지배세력들을 제후적인 존재로 편제하여 피병합소국에서 가지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와 같은 제

30) 『三國志』魏書 東夷傳 濊傳.

후적인 세력들이 모두 과거 소국의 지배세력들의 후예들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시대에는 지방의 제후적인 존재를 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제후에 해당하던 지방세력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중앙정계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신라에서는 피병합소 국들을 군으로 편제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사료C4). 그런데 일찍부터 군을 칭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병합소국에 대한 통제가 고구려와는 달랐던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골별국왕 아음부를 왕경으로 이주시킨 것은 피병합소국의 최고 지배세력을 사민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라의 피병합소국의 지배세력은 일부 과거 소국의 왕족과 촌의 지배세력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후일 신라의 촌주세력으로 편제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중앙으로 사민된 피병합소국의 왕과 그 일족들은 신라 지배세력집단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을까. 후일 본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해의 세력들은 신라에서 진골신분을 차지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피병합소국의 정치세력들이 왕경으로 이주하여 신라의 지배신분으로 편입되기는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더우기 지방세력들 중 제후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세력은 없었다고 믿어진다.

VII. 맺음말

앞에서 정리한 한국 초기국가 형성기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제시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촌락사회의 지배세력에 대한 이해는 駕洛國의 9촌장과 斯盧國의 6촌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은 촌장 또는 추장으로 불렸다. 이들은 가락국을 9개

촌으로, 사로국을 6개 촌으로 나눈 정도의 공간을 지배하던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는 가락국이나 사로국의 형성 이전인 청동기시대 또는 지석묘를 축조하던 시대였다. 물론 고조선의 경우 청동기시대에 이미 소국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촌락사회의 지배세력들도 이주민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촌락사회의 각 촌에 사는 주민들은 대체로 씨족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촌의 주민들은 다시 가계집단으로 나누어 각기 일정한 마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국의 정치지배세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韓國史상 등장하였던 여러 소국들의 국가형성 신화를 보면 소국의 형성세력은 거의 모두가 이주민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 국가형성 세력이었던 이주민세력은 정치적인 선진지역으로부터 정치적인 갈등과정에 패하여 이주한 집단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집단은 선진정치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었고 국가를 형성하여 통치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이주민들은 새로이 이주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거치며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이주민 집단의 규모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이주민 집단들이 세력연맹을 맺어 정치적인 힘을 모으기도 하였다. 일단 그와 같은 이주민들에 의하여 소국이 형성된 후에는 과거 촌락사회의 지배세력들은 제 2급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소국의 지방행정 구역으로 편제된 촌락의 지방세력으로 되었다. 소국을 다스리게 된 이주민 계통의 주민과 촌락의 지방세력으로 된 주민들 사이에는 혈연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단절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소국단계에 이르러 본격적인 의미의 신분제가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소국의 정치지배세력들은 소국의 정치중심지에 그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성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지내며 단결하였고 지배세력으로서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소국의 정치세력들도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며 그 안에 신분적인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

한 현상은 소국연맹, 소국병합 단계를 거치며 크게 나타났다.

세제, 소국연맹 단계의 정치지배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소국단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단지 앞에서 생각한 것과 같이 정치세력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각 소국에 각기 정치지배세력이 존재하였지만 여러 소국을 하나의 연맹체로 묶는 과정에 소국들의 맹주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맹주국의 정치지배세력의 지위는 한층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맹주국의 지배세력은 점차 다른 소국들의 지배세력들과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실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네제, 소국연맹의 맹주국들은 점차 이웃한 소국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왕국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韓國史상 소국병합 단계까지 정치적 발전을 한 나라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소국병합 단계에 이른 국가에서는 피병합국을 존락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방 행정구역 편제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와같은 과거의 소국을 단위로 편제한 지방행정 구역의 지방세력들은 대체로 과거 소국의 정치세력들로 이루어졌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서는 그들 과거의 소국지역의 지배세력을 일종의 제후와 같이 편제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력들이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하여 신라에서는 보다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피병합소국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어 과거 소국의 지배세력들은 대체로 제거되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지배세력이 왕경으로 사민되었으나 신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소국병합 단계에 이르러 왕, 왕비를 배출하던 최고의 정치지배 세력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러한 세력들은 다시 신분을 달리하는 계층으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의 한 부분이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수정·보충할 예정이다.